

2026학년도 **NOT.N** 독서 미니 모의고사 1회 문제지

국어 영역

홀수형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십시오.

쉽게 먹고 쉽게 뱉어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 문형 (홀수/짝수),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FINAL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

Final

홀수형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헤드폰은 소리를 출력하는 대표적인 음향 기기 중 하나로, 음파의 전달 구조와 전자기적 변환 원리를 기반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스피커와 달리, 헤드폰은 착용자의 귀에 밀착된 소형 장치이기 때문에 청취 환경의 밀폐성, 소리의 왜곡 최소화, 주파수 응답 특성 보정 등 추가적인 설계 요소들이 필수적으로 고려된다.

헤드폰의 기본 구성 요소 중 핵심은 드라이버 유닛이다. 이는 전기 신호를 받아 진동판을 진동시키고, 이로 인해 공기 입자를 진동시켜 소리를 생성한다. 대부분의 유선 헤드폰은 ㉠다이내믹 드라이버를 사용하는데, 이는 영구자석, 보이스 코일, 진동판의 세 가지 핵심 부품으로 구성된다. 보이스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로런츠 힘의 작용으로 코일이 진동하게 되고, 이 진동이 진동판에 전달되어 음파를 생성한다. 이때 생성되는 소리의 품질은 진동판의 재질과 두께, 코일의 권수, 자석의 자속 밀도 등 여러 요소의 정밀한 조합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헤드폰은 스피커보다 귀에 훨씬 가까운 거리에서 음파를 전달하기 때문에, 공간음장 재현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스피커는 좌우 두 개의 유닛에서 음파가 다양한 반사 및 굴절을 거쳐 청자의 귀에 도달하지만, 헤드폰은 각 귀에 독립적으로 밀폐된 유닛을 배치하므로 자연스러운 방향성과 거리감을 재현하기 위한 추가 처리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기술로는 헤드 리트랜스퍼 함수가 있다. 이는 특정 주파수의 소리가 사람의 귀에 도달하기까지 머리, 귓바퀴, 어깨 등의 신체 구조에 의해 어떻게 왜곡되는지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함수이다. 디지털 신호 처리 기술(DSP)을 이용하여 원음에 HRTF 데이터를 적용하면, 가상 음원의 위치를 현실감 있게 ㉡재현할 수 있다.

소리의 왜곡을 줄이기 위한 기술도 중요하다. 대표적인 예로 임피던스 매칭 개념이 있다. 헤드폰과 오디오 출력 장치의 임피던스가 불일치하면 출력 신호가 손실되어 음압이 약해지거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급 헤드폰에는 임피던스 정합 회로가 내장되며, 저임피던스 헤드폰은 일반 휴대용 기기와의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이처럼 음향 재현의 품질은 단순한 드라이버의 성능뿐 아니라 전자 회로의 정합성, 청취 위치의 물리적 구조, 인간의 생리적 청각 특성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최근에는 다이내믹 드라이버 외에도 밸런스드 아마추어 드라이버, 플래너 마그네틱, 정전식 드라이버 등 다양한 방식이 병용되고 있다. BA 드라이버는 작은 크기에도 높은 주파수 응답을 가능케 하며, 인이어 모니터(IEM) 등에서 선호된다. 플래너 마그네틱 드라이버는 진동판 전체에 균일한 자기장을 분포시켜 낮은 왜곡률과 넓은 다이내믹 레인지를 확보할 수 있으며, 정전식 드라이버는 초박형 진동막에 정전기적 인력을 가해 정밀하고 투명한 고음을 구현하는 데 유리하다. 각 드라이버 방식은 고유한 음향적 특성을 지니므로, 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되거나 다중 드라이버 시스템으로 병렬 배치되기도 한

다.

결국 헤드폰 설계는 단순한 소리 출력 장치를 넘어서, 신호의 입력부터 음파의 출력, 그리고 인간의 인지 구조에 이르기까지 다층적인 기술과 인지과학적 이해가 결합된 종합적 음향 공학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1.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헤드폰은 귀에 밀착된 구조이기 때문에, 공간감 있는 음장 구현을 위해 별도의 보정 기술이 적용되기도 하겠군.
- ② 진동판의 재질, 보이스 코일의 특성, 자석의 자속 밀도 등은 소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겠군.
- ③ 다이내믹 드라이버는 정전기적 인력을 활용하여 진동판을 움직이므로, 고음 재현에 특히 적합한 구조라고 하겠군.
- ④ 임피던스가 불일치하면 출력 손실이나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부 헤드폰에는 정합 회로가 내장되기도 하겠군.
- ⑤ 밸런스드 아마추어 드라이버는 소형화에 유리하고 고주파 응답 특성이 좋아, 이어폰 등에 활용되겠군.

2.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진동판을 움직이는 힘의 발생은 자석 자체의 진동에서 비롯되므로, 자속 밀도보다는 진동 주파수가 품질 결정에 더 큰 영향을 주겠군.
- ② 보이스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자석 주변의 자기장과 상호작용하면서 힘을 생성하므로, 전자기적 원리에 기반해 음파를 출력하겠군.
- ③ 보이스 코일이 진동할 수 있으려면 진동판이 코일보다 먼저 움직여야 하므로, 진동판 재질의 탄성력이 우선적 요인으로 작용하겠군.
- ④ 드라이버 내 구성 요소들은 모두 회전자 역할을 수행하므로, 기계적 회전력의 전달을 통해 음향 출력이 이루어지겠군.
- ⑤ 로런츠 힘이 발생하려면 보이스 코일에 자화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일반적인 코일 구조로는 다이내믹 드라이버를 구현할 수 없겠군.

3.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를 바탕으로 헤드폰 A와 B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헤드폰 A: 다이내믹 드라이버 / 250Ω 고임피던스 / HRTF 미적용

헤드폰 B: 플래너 마그네틱 드라이버 / 32Ω 저임피던스 / HRTF 적용



- ① A는 B보다 구동에 더 높은 전압이 필요하므로, 일반 휴대기기보다 전용 앰프와의 조합이 더 적절하겠군.
- ② B는 고주파와 저주파 재생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고 왜곡률이 낮아, A보다 정밀한 음향 재현이 가능하겠군.
- ③ B는 HRTF 기술이 적용되어 있으므로, A에 비해 소리의 공간 방향성과 거리감을 보다 현실감 있게 전달하겠군.
- ④ A는 저임피던스 장비와 연결 시 출력 손실이 적어 음압 유지에 유리하므로, 휴대기기와의 연결에 보다 적합하겠군.
- ⑤ A는 B와 달리 음장의 방향성 재현 기술이 빠져 있으므로, 좌우 채널 간 공간감을 생성하는 데 한계가 있겠군.

4. ㉠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데이터 손실 없이 원본 파일을 다시 복구하는 절차
- ② 실제 청취 환경에서 들리는 소리를 유사하게 모방하는 방식
- ③ 입력 신호의 크기를 증폭시켜 더 넓은 공간에 전달하는 행위
- ④ 고유한 주파수 성분을 제거하거나 강조하는 주파수 정리 기술
- ⑤ 신호 전달 속도를 늦추어 잔향 효과를 의도적으로 부여하는 방식

[5~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금융위기는 단일 사건이 아닌 일련의 구조적 전개다. 보통 자산 가격의 비정상적 상승, 과도한 신용 창출, 그리고 금융 상품의 고 위험 구조화가 복합적으로 얹히며 발생하고, 그 충격은 금융 부문을 넘어 실물경제로 전이된다. 이때 위기의 전개는 비대칭적 정보와 전염성을 동반하며, 시장의 자생적 복원 능력을 압도하게 된다. 특히 은행 중심의 간접금융 구조에서는, 위기 상황에서 은행이 위험을 회피하려는 과정에서 신용 중개 기능이 급속히 마비된다. 이로 인해 자금 수요자인 기업과 가계가 유동성 경색에 직면하며, 경기 위축이 자기 강화적 악순환 구조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금융위기 상황에서 중앙은행은 전통적으로 통화정책을 통해 개입한다. 기준금리 인하, 지급준비율 조정, ㉠공개시장조작(OMO)을 통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금융 시스템을 안정화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책의전성, 즉 위기 이전의 경제 구조가 정책의 효과를 결정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과 유럽은 모두 과도한 민간 부채에 의존한 성장 구조를 공유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고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해도, 민간은 오히려 부채 상환을 우선하며 소비와 투자를 줄인다. 즉, 유동성 공급이 곧바로 총수요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현상, 이른바 ‘디레버리징 기반의 유동성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디레버리징은 경제 주체들이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부채를 축소하고, 소비와 투자를 억제하는 과정이다. 이때 중앙은행이 아무리 통화를 공급하더라도, 경제 주체의 심리가 위축되어 있다면, 그 통화는 유휴 자산으로 잔존하게 된다. 즉, 통화 승수가 작동하지 않으며, 유동성은 실제 경제 활동으로 전이되지 못한다. 이에 따라 통화정책의 유효성은 자산 시장의 신뢰 회복, 은행 시스템의 복원력, 그리고 기대 형성의 구조적 조건에 달려 있게 된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한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은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도입하였다. 양적 완화, 포워드 가이드스, 마이너스 금리 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양적 완화는 중앙은행이 장기 국채나 MBS(주택저당증권) 등의 자산을 직접 매입하여 금융기관의 대차 대조표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장기 시장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어 투자와 소비를 자극하려는 정책이다. 그러나 이 역시 금융자산 가격을 왜곡시키거나, 자산 시장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더욱이 금융기관이 여전히 위험 회피적이라면, 공급된 유동성은 실물경제로 이전되지 않고 잉여준비금으로 남게 된다.

결국 통화정책의 실효성은 단순한 유동성 조절이 아니라, 경제 주체의 신뢰 회복과 통화 흐름의 실제 순환 회복에 달려 있다. 이는 단지 ‘돈이 풀리는가’가 아니라, ‘돈이 움직인다는 기대가 형성되는가’의 문제이며, 따라서 통화정책은 금융 안정과 기대관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내포한다.

(나)

최근 이러한 전통적 통화정책의 구조적 제약과 시장의 복합화에 대응하여, 디지털 화폐, 특히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의 정책 도입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㉞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관리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 화폐로, 기존 지폐나 동전과는 달리 디지털 네트워크 기반에서의 실시간 거래, 사용자 식별, 스마트 계약이 가능하다는 기술적 특성을 가진다.

가장 주목되는 특징은 정책의 직접성이다. 기존의 통화정책은 기준금리를 통해 시중금리를 간접 조정하고, 그로 인해 소비·투자를 자극하는 구조였으나, CBDC는 특정 계층에게 일정 금액의 디지털 화폐를 직접 이체하거나, 소비 유도 목적의 조건부 유통(예: 유통기한 설정, 특정 업종만 사용 가능 등)이 가능하다. 또한, 실시간 데이터 기반의 분석이 가능하여, 경기 상황에 따라 유연한 정책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책 집행의 정밀도와 기민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된다.

그러나 이 같은 시스템의 구현에는 복수의 전제가 요구된다. 첫째, 전 국민이 디지털 화폐를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의 완비가 전제된다. 이는 단순히 인터넷 연결이나 모바일 기기 보유를 넘어서, 금융 포용성의 확보, 즉 고령층·저소득층의 디지털 적응력까지 포함한다. 둘째, 보안성과 익명성 사이의 긴장이다. 정책 효과성을 위해서는 거래 내역의 추적과 통제 가능성이 필요하지만, 이는 사생활 보호 및 자유로운 경제 행위라는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 셋째, 민간 가상화폐와의 역할 중첩에 따른 통화 질서의 혼성화 문제다.

실제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민간 주도 가상화폐는 일정 부분 가치 저장 및 교환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이를 통화 또는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경우 ㉟화폐의 이중 구조가 형성되며,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경로가 우회되거나 우선순위가 약화될 수 있다. 이는 통화정책의 효과성을 저해하고, 정책적 권한이 부분적으로 시장 또는 알고리즘에 위임되는 통화주권의 파편화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디지털 화폐는 정책적 유연성과 직접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통화 권력의 분산과 조절 실패 가능성이라는 ㉟양면성을 내포한다. 향후 중앙은행은 기술적 수단 이상의 정치·사회적 설계 원리를 포괄하여, 통화정책의 유효성과 정당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진입하고 있다.

5. 밑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금융위기의 전개는 금융 부문에서 실물 부문으로의 전이 과정을 수반하며, 정보 비대칭성이 이 전이의 매개가 되기도 하였다.
 - ② (가): 디레버리징 국면에서는 통화정책이 유효하지 않으며, 중앙은행의 역할은 실질적으로 중단되는 상태라 하겠다.
 - ③ (나): CBDC의 도입은 중앙은행이 민간 부문의 신용 창출 기능을 통제하고자 할 때 유용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 ④ (나): 디지털 화폐가 제도권 통화 시스템에 편입되면 통화주권이 일정 부분 파편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 ⑤ (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통화정책은 전통적 금리 조절 방식보다 직접적이고 정밀한 개입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6. ㉟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장 참여자들이 위험 회피 심리로 인해 부채 비율을 높이는 전략으로 전환하는 현상이겠군.
 - ② 경기 과열 국면에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며 민간의 소비를 장려하는 정책이라 하겠군.
 - ③ 금융 위기 이후 민간과 정부가 자산을 축소하며 부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과정이겠군.
 - ④ 통화 팽창 국면에서 통화 공급을 축소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조치라 볼 수 있겠군.
 - ⑤ 정부의 구조 조정 정책으로 인해 시장에서 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을 지칭한다고 보아야겠군.

7. ㉟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금과 예금이 상호 교환되면서도 각기 다른 발행 주체를 갖는 구조를 말하는 것이겠군.
 - ② 예금 통화가 중앙은행에 의해 직접 발행되지 않기에 금융 안정성에 영향을 줄 여지를 내포하겠군.
 - ③ 민간은행이 발행한 예금 통화가 실질적인 구매력을 형성한다면, 이는 신용 창출과 연결될 수 있겠군.
 - ④ 중앙은행이 발행한 현금은 유통 수단이지만, 예금 통화는 본질적으로 실물 자산이라 할 수 있겠군.
 - ⑤ 동일한 단위의 통화가 발행 주체에 따라 서로 다른 통화 정책의 경로를 거친다고 이해해야겠군.

8. ㉠와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는 중앙은행이 국채 매매를 통해 직접 소비자와 거래하는 방식이며, ㉡는 이 과정에서 정부가 발행 주체가 되는 디지털 채권을 의미한다.
 - ② ㉠는 중앙은행이 시장 금리를 조절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자산을 거래하는 방식이며, ㉡는 그와 달리 개인에게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화폐다.
 - ③ ㉠는 정부가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수단이며, ㉡는 민간 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높이기 위한 통제 장치다.
 - ④ ㉠는 환율 안정을 위해 외환 보유액을 조절하는 정책이며, ㉡는 외환 보유고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디지털 지급 준비금이다.
 - ⑤ ㉠는 실물 경기를 자극하기 위한 물가 연동 채권 매입 방식이며, ㉡는 이와 같은 조작이 미치는 영향을 자동화하는 기술적 시스템이다.

9. (가),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A국은 경기 둔화 조짐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상하였으며, 이는 물가 안정보다는 외국 자본 유치를 통한 통화 가치 방어를 우선시한 결정이었다.

반면 B국은 CBDC를 시험 도입하면서, 이를 통해 민간은행의 과도한 신용 창출을 통제하고자 했다.

C국은 기존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저하되자, 민간 주도 디지털 자산을 제한적으로 제도화하며 통화 시스템 내로 일부 수용하였다.

- ① A국은 통화 정책의 목적을 물가 조정보다는 외환 수지 개선에 둔 것으로 보이므로, 자본 이동성에 민감한 정책 설계를 추구했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B국의 조치는 중앙은행 발권력의 강화보다는 민간은행의 신용 창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통화 승수의 확장을 의도한 측면이 있겠군.
- ③ C국의 결정은 통화 권력의 분산을 일정 부분 인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제도권 내 유입을 통해 통제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시도였겠군.
- ④ A국은 금리 인상을 단행함으로써 경기 회복보다 통화 안정 우선의 기조를 택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디레버리징 국면과 충돌할 여지를 내포하겠군.
- ⑤ B국의 CBDC 도입은 전통적 통화 정책 수단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조정 기제를 탐색하는 맥락이라 볼 수 있겠군.

10. ㉠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통화 공급의 주체가 다양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정책 집행력 저하와 금융 안정성 확보라는 긍정적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
- ② 디지털 자산의 활용이 확대되면서 통화 시스템이 탈중앙화되었으나, 그로 인해 실물경제와의 단절이 해소된다는 점
- ③ 민간 주도 통화 구조가 강화되면서 통화 발행 주체가 다양화되고, 그에 따라 중앙은행의 독점적 기능이 강화되는 상황
- ④ 신용 창출이 확대될수록 통화 유통량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통화 당국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이중 효과
- ⑤ 환율 조정과 물가 안정이라는 이중 목표가 통화 정책에서 충돌하게 되는 이중 과제의 구조를 의미하는 경제 현상

• 시험이 시작될 때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